

기후 티핑포인트: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

조천호

전 국립기상과학원

얼마 전까지 지구라는 ‘큰 행성’에서 인간이 만든 ‘작은 세상’이 별 탈 없었다. 이제 ‘작은 행성’에 ‘큰 세상’이 들어서고 있다. 인간이 만든 세상이 거대한 가속(Great Acceleration)으로 성장하는 반면, 지구 시스템은 거대한 가속으로 무너지고 있다. 그 결과 인간이 기후를 변화시키지만, 기후를 통제할 수 없어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. 기후위기가 닥치면 자연만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다. 정치, 경제와 사회도 급속하고 심각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내몰려 통제할 수 없게 된다.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, 전쟁, 환경 오염, 감염병과 금융위기와 같은 인류가 경험한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경험한 적 없는 위기이다.

앞으로 기후위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. 기후위기보다 인간에게 더 제한을 가하는 지배적인 조건은 없기 때문이다.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친다. 기후위기는 문명 자체의 위기이므로 지금 체계에서 일부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.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담대한 전환 (Great Transformation)만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.

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. 기후과학은 기후위기로 인한 파멸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알려 준다. 이 때문에 파멸은 일어나게 될 결론이 아니라 선택일 뿐이다. 이 선택으로 인류가 공존할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를 가르게 될 것이다.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.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모두가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도달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했다.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.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.